

완화학과 소개

염창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완화학과 교수



서론

2008년 9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 완화학과가 개설되었다. 완화학은 이미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완화학이 호스피스에서 태동되었기 때문에 호스피스와 동일시 생각하지만 호스피스는 완화학의 한 분야이지 호스피스가 완화학을 모두 말하지는 않는다.

본론

완화학은 1987년 영국에서 의학의 하나의 전문분야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그 학문을 정의하기를 '병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깊이 진행되어 있어 완치가 불가능하며 죽음이 예견된 환자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함에 있어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돌봄'이라고 하였다.

또한 199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완화학을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으로, 통증과 다른 증상들,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의 조절이 주가 되며, 완화의료의 목표는 환자와 가족들이 최상의 삶의 질을 성취하는 것(the active care of patients whose disease is not responsive to curative treatment. Control of pain, of other symptoms, and of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problems, is paramount. The goal of palliative care is achievement of the best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이라고 정의하였다.

완화학이란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며 치료하는 의학의 한 전문분야이다. 과거에는 감염 같은 급성 질환으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반면 현재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암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은 1%에 불과하며 99%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완화학의 범위는 점점 더 증가하며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이 진단될 때 완화학 전문의는 종양학과 전문의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다가 더 이상 완치를 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면서 임종을 맞도록 도와준다. 즉 질환의 초점을 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증상 조절 등 완화에 두고 있다.

현재 완화학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호스피스이다. 말기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상조절 등을 해주고, 사별관리까지 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대부분은 호스피스에 국한되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지지적 종양학(Supportive Oncology)이다. 이것은 암치료과정동안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암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부 암환자들은 항암치료가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없는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암환자도 의외의 결과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 완화의학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증상조절 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 동안 잘못 먹고 오심과 구토가 생기면 증상조절을 위해 적당한 약물을 주입하고, 수액 공급을 통해서 영양공급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암 치료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관리해 준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생기는 림프부종, 대장암 수술 후에 생기는 장루 등을 말한다.

셋째는 예방적 종양학(Preventive Oncology)이다.

과거에 비해 암환자들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인해서 완치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환자들에게 주치의로서 암 재발을 막고, 암이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론

강남성모병원의 완화의학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나라 완화의학을 열어 가야한다는데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도 뽑고, 학부 과정 중에 완화의학이라는 것도 개설할 계획이다. 지면 관계 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완화의학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힐 지는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그것과 맞서서 살도록 하라.

삶을 회피한다든지 고약한

이름으로 욕하지 마라.

그대의 삶은 그대의 생각만큼

그렇게 엉망이지 않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소로의 속삭임〉 중에서-

